

설 가정예배 순서지

목	도	----- 인도자 -----	인도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	다같이
기	도	-----	말은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 때나 기쁠 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2025년 새해, 하나님만 경외하며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게 하옵소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시편 127편 1~3절 (구약 898면) -----	인도자
말	씀	-----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찬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지키시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모든 수고를 의미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를 돌보지만,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진정한 건축가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보호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간구함에 거할 때 참된 안전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가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자매는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통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 성경 본문 (사편 107:1~3)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 찬송가 】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